



## 산재예방 무력화하는 노동부장관 퇴진하라!

### 4/25(수) 노동부장관 퇴진 결의대회 개최

금속노조가 4월 25일(수) 13시 노동부 장관 퇴진 결의대회를 연다. 그동안 발생한 중대재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와 결탁한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문제해결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해 위험성평가, 공정안전보고제도 개선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금속노조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은 개악하면서 노동자 생명과 안전은 뒷전인 노동부 장관의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 자본과 결탁한 노동적폐는 여전히 그대로

작년 10월 한국타이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전노동청이 보인 모습은 말 그대로 자본과 결탁한 모습이었다. 지부는 이에 대해 항의하며 오복수 대전노동청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투쟁을 확대했다. 당시 노동부 장관에게 요구서를 보내며 노동적폐 오복수 대전노동청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노동부장관도 노동적폐로 규정하고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결국 오복수 대전노동청장은 정기 인사에서 좌천성 인사이동을 하게 됐지만, 노동부장관은 노동적폐 청산에 미온적이었다.

그 이후 발생한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포스코, 대우조선 등의 중대재해에서도 각 지역 노동청은 자본과 결탁한 모습을 보였고, 노동부 본부에 해당 관료 징계 등을 요구했으나 모두 묵살됐다.

이뿐만 아니다. 위험성평가 제도는 형식적 제도로 전락했는데도 노동부의 지도감독은 없다. 공정안전보고제도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제안하고 노력했으나 노동부는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개악에는 앞장서면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은 뒷전이다.

### 무지하고 무능한 노동부장관 퇴진하라!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를 약속했다. 그러나 현실은 노동적폐가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 노동적폐를 청산하려면 노동부 관료들의 행태를 바꿔야 하는데도 노동부는 문제 관료들을 징계하거나 제도를 개선하는데 나서지 않고 있다. 노동부장관이 무지하거나 무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노동부장관은 필요없다. 진짜 노동존중 사회 건설에 앞장설 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 김영주 노동부장관은 퇴진하라.

## 호텔리베라노조 단식농성 돌입!

호텔리베라 폐업사태가 철거 시도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호텔리베라노조 김희준 위원장과 민주노총 대전본부 이대식 본부장이 18일(수)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대전노동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며 단식농성을 이어간다.

호텔리베라 사측은 노조와의 대화, 대전시와 유성구청 등 정치권의 중재 노력도 모두 거부했다. IMF 때 공적자금으로 회생시킨 호텔임에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는커녕 폐업하고 철거하겠다고 노동자와 지역시민을 농락하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지부는 26일(목) 18시 리베라호텔 앞에서 열릴 촛불문화제에 함께할 예정이다. 단식까지 이어진 투쟁이 외롭지 않도록 지역 연대를 실천하자.

### \* 주요 일정 \*

- ☐ **3차 중앙교섭**  
4/24(화) 14시, 금속노조 인천지부
- ☐ **산재예방 무력화 노동부장관 퇴진 결의대회**  
4/25(수) 13시00분, 서울 광화문  
\*이어서 민주노총 결의대회
- ☐ **3차 지부교섭**  
4/26(목) 15시, 대한이연
- ☐ **호텔리베라 촛불문화제**  
4/26(목) 18시, 리베라호텔